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47호
5월 23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비정상적 성행위 옹호 인권위 개탄

동반연·동반교연 성명, 인권위 폐지 운동 확산될 것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난 5월 11일(월) 발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기독교 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송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간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송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간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칭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송실에 오신 ‘성소수자 /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송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게시를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간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제 양성이라는 간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반도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송실대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형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집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간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간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다.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간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간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 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

이 정당하다.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한발제 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화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송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 자커를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간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에(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였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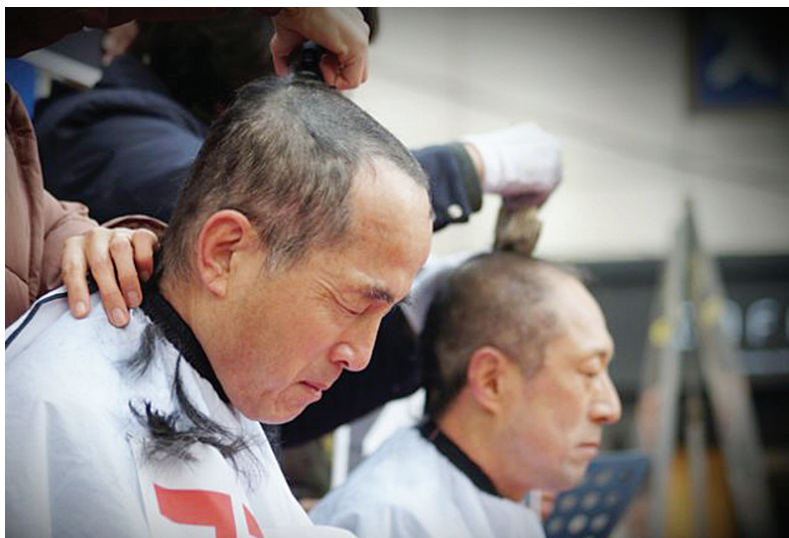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끄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ase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의 충돌 등 반대 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간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계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0. 5. 11.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송실대·한동대에 대한 인권위 방침에 항의하며 식발하고 있는 동반연·동반교연 김원평·제양규 교수(오른쪽부터)-사진제공 크투

중앙선관위 상대로 불법 및 위법 행위 밝힐 것

기독자유통일당, 21대 총선 수사 촉구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21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난 5월 11일 촉구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 가장 많은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으로서 21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온갖 위법적,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 2020년 5월 11일 A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B 종로구선관위 사무국장, C 종로구선관위 선거계장에 의해 지행된 1) 투표함 봉인지 훼손행위, 2) 투표함 취거는니행위를 각 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범죄, 다. 공무원비밀유지법, 라. 직무유기의 죄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소하려고 한다.”라며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피고소인 A와 B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과 계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제 21대 총선의 투표함 등을 당선인의 임기 중 온전히 보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해, 제21대 총선 이후, 함부로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 등을 제거하고 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했으며, 투표함을 온전히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제21대 총선을 위해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을 손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통일당은 “고소인들은 2020.4.29. 서울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동 선거구의 선거 관련 자료 등을 증거보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5.4. 이를 인용해 증거보전 결정을 했다.”라며, “그런데, 피고소인 김민석과 송현영은 2020.5.4. 아래와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피고발인

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관련 자료를 부존재하다고 거짓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동 선거구 관할 개보한 투표함 일체와 봉인지에 대해 ‘현재 투표함은 빈 투표함으로 경기도 연천 집중창고로 이송됨’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검증기일 전날인 2020. 5. 6. 위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했다.”라며, “동 선거구 관할 봉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자료 일체 및 동 선거구 관할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등 일체에 대해 ‘자료 부존재’라고 했으나, 2020.5.7. 증거보전 검증 당시 피고발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자료가 존재했다.”라고 말했다.

프로 소장
의
만능
인사
대행

‘삶의 이유와 의미’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전체 이로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것을 ‘열력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배타의지’라고 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의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출처가 사람이란다면 그러한 이유와 의미는 중국에 가서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종교와 사상과 철학으로는 사람이 사는 참된 이유와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참된 이유와 의미를 사람을 만든 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계시하신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인생이란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행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에는 기독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조용목 목사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조장한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임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를 띄우는 것은, 분명히 양심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히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성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한 것처럼, 동성애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 인사는 즉각적으로 이는 질병이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3년에 실제로 만들어졌고 하던 차별금지 법안에서 명시한,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던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게이클럽과 일반클럽 등은 문을 열었고, 그 가운데 이곳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5천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합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틀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었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성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자”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 금식하며 한국교회-나라 위해 기도할 것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1천 2백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 회개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최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성도 한 가정씩 할당에 하루 금식하며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지난 5월 12일(토) 호소문을 통해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 이후 시대마다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로 위기를 넘겨왔다”며 “현재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아직은 선부를 말이지만 말세의 징조로까지 말할 정도로 파괴력이 상당히 큰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자

치단체에서 시작돼 정부까지 교회에 대해 무리한 언어와 경찰까지 대동한 점검과,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종교를 개탄하겠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회장은 “총선 후 정부가 교회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대충 알고 계시므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제21대 총선 결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매우 우려스럽지만,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구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앞도려 통회자복하며 기도할 때다”며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 뜻을 찾고 방향을 구하길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회장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작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흐트러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회장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못 해 사회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주는 것’, ‘예배로 모이기를 폐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챈 것’, ‘인간의 명예나 돈, 감정, 자연, 학연싸움에 노획, 총회, 연합회, 선교단체 등에서 각종 분열과 분쟁하는 것’ 등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45기 부흥목회연구원 개강

봄학기 개강예배 및 세미나, 오는 7월 17일 종강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지난 5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성복교회(담임 이태희 목사) 바울성전에서 동 본부산하 부흥목회연구원 2020년도 제45기 봄학기 개강예배 및 부흥세미나를 가졌다.

1부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김아래 목사의 사회로 총동무회장 양준원 목사의 기도, 총강사단장 신석 목사의 성경봉독, 행정처장 손보라 목사의 특송, 총재 이태희 목사의 마 5: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흥세미나?’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대표회장 함덕기 목사·연수원장 박영길 목사의 축사, 부총재 고세진 목사의 격려사, 연구원장 전영규 목사의



학사보고 및 광고 후 총재 이태희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이어진 2부 개강 부흥세미나는 부총재 이주형 목사가 특강을 했으며, 3부는 제45기 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1학기 일정은 이번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6일(목), 17일(금) 양일간 연합수련회를 끝으로 종강한다.

미스터트롯 류지광, 선한이웃 화보 재능기부

장기기증운동…“막다른 길에서 만난 미스터트롯, 기적을 나누고 싶어요”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4월 8일(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가수 류지광 씨의 잡지 ‘선한이웃’ 표지 화보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선한이웃’은 장기기증인과 이식인의 미담 소식 및 장기기증 관련된 정보를 담은 잡지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보 촬영은 류 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올해 최고의 화제를 불러 모은 TV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동굴 저음’으로 화제가 된 가수 류지광 씨는 지난 2013년 교회에서 드려진 생생나눔 예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류 씨는 “7년 전, ‘흠으로 돌아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어요”라며 등록 계기를 밝혔다. 이후 2018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모너패



밀리’를 위한 공연에도 함께했다. “생명을 살리고 떠난 장기기증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연말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연예인 합창단인 ‘Acts29’ 단원들과 함께 재능기부로 공연을 했어요. 저희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참석하신 분들의

사연을 곁에서 들으며 생명을 살리고 떠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됐죠.”라고 소감을 전했다.

본부 행사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류지광 씨는 “장기기증은 자신의 삶으로 사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라며 “저 역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일상에서부터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라는 뜻을 밝혔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하며 사진 촬영을 진행한 류 씨는 “제가 막다른 길에서 기적처럼 ‘미스터트롯’을 만나 기사회생 했듯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노래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환자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한내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보수교단협, 교단장 및 총무 연석회의

향후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5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비전센터에서 교단장 및 총무, 단체장 법인이사, 공동회장, 자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의 어려운 상황과 향후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오현관 목사(오순절성회 총무)의 사회로 김성림 목사(예장제3총회 총무)의 기도, 김영애 목사(예장예능총회 총무)의 성경봉독, 도갑을 목사(예장호신 협동총무)의 특별찬양, 장현국 목사(예장진리총회 총회장)의 고전 4: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선교, 박은주 목사의 불환찬송, 김혜자 목사(예장들로스 총회장)의 불환기도, 박영호 목사(법인이사)의 축사, 애영수 목사(한기보 고분)의 격려사, 한홍교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씀, 김준희 목사(사부총장)의 광고

진공영 목사(중부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교회도 회중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에 목사님들은 성도들 간에 ‘두뇌’로 가까이 다가가기 더욱 좋은 관계를 갖고 말씀이 육신 되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말씀

으로 선포하며, 능력의 사역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현 정치권력이 기독교를 재편하고자 하는 발언에 대하여, 교단장 및 단체장 총무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한동대 25개국 학생,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 동참

“한국과 전 세계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요”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은 최근 교내 재학 중인 25개국 학생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다. 가나,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온두라

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페루, 프랑스, 필리핀, 한국, 헝가리 출신 학생들이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다.

학생들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화동작과 함께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22개의 각국 언어로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국에서 온 Karis Tripple 학생은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2월에 입국해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의 의료진과 학교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수학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전 세계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의료진들에게 전한 감사 영상은 한동대학교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미혼모 가정 위한 협약 체결

육아용품 포브-기독교단체 지파운데이션...베이비 선물상자 전달

육아의출용품 브랜드 포브와 지파운데이션이 저소득 미혼모 가정을 위한 ONE for ONE(이하 원포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포브와 지파운데이션은 지난 7일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포브의 신제품인 ‘보노와 벨라’의 판매된 수량만큼 미혼모를 위해 기저귀 가방을 기부하는 원포원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포브에서 기부한 기저귀 가방은 지파운데이션의 ‘헬로 베이비 선물상자’ 캠페인을 통해 기저귀 가방과 함께 물티슈, 피우지, 로션 등이 담겨 미혼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인수 포브대표는 “기저귀 가방은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들었는데, 미혼모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충관 지파운데이션 대표는 “미혼모 가정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준 포브에 감사드립니다”며 “원포원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미혼모 가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브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의 주요 제품 제조회사인 (주)동진기연의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의 가치를 담아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육아의출용품 브랜드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자발적 기부 캠페인’ 진행

8월 31일까지 “더 어려운 이웃 위해 후원해주세요”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직접 후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캠페인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생계 위

기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에 발맞춰 오는 8월 31일까지 기아대책 홈페이지(www.kfai.or.kr)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기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아진 후원금은 기아대책의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 ‘희망동지’ 대상자 중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된다. 희망동지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사회복귀 유관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CGNTV, 미혼 한부모 가정에 5000만 원 전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길 바라”

CGNTV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더브더월드’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더브더월드’는 전국 900여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지난 7일, CGNTV 이용경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더브더월드’에 방분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식료품 키트 100 박스를 포장했다.

‘더브더월드’에 전달된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모금에 중 일부이다. CGNTV는 별도의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더브더월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단체 13곳과 전국 15개

소 청소년 회복센터에 총 1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CGNTV 이용경 대표는 “2300여 후원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봉사로써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돕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큰 기쁨이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더브더월드 박대원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은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며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전화와 문자들이 빗발친다”며 미혼 한부모 가정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제주한마음교회 항존직 임직예배 드려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5월 10일(주일) 오후 5시 30분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교회창립 23주년을 맞아 장로 3명, 명예권사 3명, 권사 3명에 대한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제주지방회 총무 안재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기진 목사(부흥사회 회장)의 기도과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엠 5:16 말씀을 본문으로 '창지기의 두 종류의 시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이전에 일반적인 시간을 살던 삶에서 이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영광스러운 시명자로의 시간을 사는 자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로 3명과 권사 6명에 대한 임직식이 은혜기운에 진행되었다.

이후 청소년 율동 팀의 특별공연이 있었고, 이재운 목사(정원 순복음은혜로교회)의 권면과 안병찬 목사(천안 순복음침아름다운



교회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9명의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김영호 장로가 안수위원과 참석자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사를



했고,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이 준비한 선물 증정의 시간과 풍성한 저녁 민찬으로 서로를 축하하

고 축복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임직예배를 마쳤다.

지방회 새 임원 구성하고 각종 회무 처리

강원동지방회 정기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5월 11일(월) 오전 11시 강릉순복음교회(담



임 정주영 목사)에서 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성은 목사의 사회로 진장길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정주영 목사의 마 8:14~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증경회장 유홍렬 목사의 헌금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이정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지방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였다. 새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 부회장 이성은 목사, 총무 최정희 목사, 재무 이종진 목사, 서기 박규희 목사, 회계 정주영 목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신병설 목사)는 지난 5월 12일(화) 오전 11시 보은순복음교회(담임 윤경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윤광진 목사(늘푸른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윤경현 목사가 설교했다.

윤 목사는 합 3:17-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란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원에서 다시 시작되어 안타깝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자.”라며 “하박국 선지서는 주전 612-603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유다왕국이 모든 방면에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께 호소하였고(합 1:12-17),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다(합 2:4).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합 3:17-19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온다”고 전했다.

이어 조숙희 목사(주무예교회)의 헌금기도와 투병중인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픈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청주 주사랑교회)의 진행으로 김윤배 목사의 재무보고, 정재광 목사의 회계보고, 기호선 목사의 서기보고, 조제호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본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신학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후 이동수 목사의 마무리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보은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5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사랑교회(담임 예정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박웅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한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육준수 목사의 사회로 서기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창 40:20-4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총회와 지방회, 예수사랑교회를 위



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광덕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직전 지방회장 이정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서기 강인덕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육준수 목사

의 총무 및 서기보고 전 재무 강인덕 목사의 재무 보고 전 회계 육준수 목사의 회계 보고 후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5월 12일(화) 오전 11시 맑은빛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서서영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김효신 목사의 대표기도, 조정훈 목사의 성경봉독, 시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김 목사는 빌 1:12-30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더 발전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맑은빛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특별히 베길선 전도사가 사랑의 장미꽃 한 송이를 전회원들에게 선물하여 귀한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 생명의 말씀 ■



김경원 목사

·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 서현교회 원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많습니니다.

첫 질문은 아담에게 하셨습니다.(창 3:9)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과 공포심이 생겨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

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창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왕상 3장에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전부후부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동생을 죽인 인간 역사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초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빈부차이, 세대차이, 이념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갈등은 가정에서의 갈등입니다.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에 가정해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금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간의 갈등, 그 결과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런 달일수록 우리는 가정의 비극적인 모습 앞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여기 가인에게 물으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폭넓게 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장)에

서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강도같이 이웃을 해치며 욕심을 채울 수 있고 레위인과 제사장 같이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려 불행을 당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웃이 누구냐?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 불행한 이웃을 보며 배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가진 같은 갈등과 시기과 질투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좋은 가족 좋은 이웃이 곧 바쁜 신앙인의 삶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창 4:3-9)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돌아온 김정은이 그리도 반가운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여 일 동안 잠적했다가 지난 5월 2일 등장하면서, 한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그 보도한 내용의 기조를 보면,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의 재등장을 매우 반기는 듯한 모습이다. 보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자.

‘북 김정은 20일 만에 공개 활동, 영상 속 건재 과시’(KBS) ‘역측 보란 듯 웃음, 김정은 20일 만에 공개석상 등장’(JTBC) ‘북한 김정은 결어서 임장하는 모습 영상으로 공개’(서울신문) ‘영상 속 김정은 자연스럽게 걷고 담배 피워 사랑설 무색했다’(한국일보) ‘김정은 공개 활동 재개, 가짜뉴스 비난 이어져’(YTN) ‘김정은 건재에 외신도 긴급보도, 일각선 태양질 미스터리 제기’(경향신문) ‘언론들 김정은 위중 무책임 보도, 탈북 정치인도 혼란 키워’(한겨레) 거기 어디 KBS는 ‘배지도 달기 전 논란, 혼합 키운 탈북 당선인들의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태영호 지성호 씨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김정은 20일 만에 재등장 청(外대) 수술 안 받아 판단’이라고 보도하고, 사실에서는 ‘김정은 잠행이 보여준 체제 불투명성-그런 김에 좌우되는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일보는 ‘김정은 등장 하루 만에-북 우리 측에 GP 향해 충격’이라고 하고, 사실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하고 자중하라’고 한다. 문화일보는 사실에서 ‘GP 피탄에도 북한(한) 감씨는 군, 폭격당해도 두둔할 건가’라고 개탄한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등장 다음날, 우리 GP에 총알이 박혔다’고 한다.

김정은의 존재가 관심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독자적인 그의 행동에 따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독재자의 잠적 후의 갑작등장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는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더욱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권이 계속 유린당하는 결과로 된다. 또 김정은 집단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도 깨고, 핵무기 개발과 첨단 미사일 개발로 세계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인 큰 문제거리를 만들 것이 뻔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위험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3대 세습을 일삼는 김정은 체제에 변화가 와야 한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전 세계에서 전부후

부한 3대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나이에 끊임없는 건강에 심각한 이상설과 실제로 위험한 중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더구나 예측불가의 행동의 과잉하는 더욱 염려스럽다.

일설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설이 있는데,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자신의 보신(保身)과 안전만을 위해서 아무 소식도 없이 잠적하고, 은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런데도 한국 언론들은 그의 등장을 반기고 있던 말인가?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일에는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국제적 상호 신뢰와 기본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를 띄우는데, 언론의 책무와 역할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정은은 지난 2010년 북한정권에 집권한 이후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 것이 별로 없다. 주민들을 여전히 가아와 질병으로 인하여 사지(死地)로 밀어 넣고 있으며, 현재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비극적, 비정상적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는 누구 못지않은 과잉(奢侈)한 지도자임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한국 언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제69회 남가주한인 온라인 기도의 날’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다. 지난 7일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은혜한 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된 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에 걸쳐 유튜브 채널 및 미주복음방송, CTSTV 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회개와 코로나 19 종식 >미국의 지도자를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는 강태광 목사(엘드쉐어 USA 대표)의 사회로 순무브먼트 박종술 목사와 찬양단의 찬양, 성사와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 미기총 회장 민승기 목사의 대표 기도로 진행됐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한기홍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앞도될 때에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아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동정

기도는 미국 역사 핵심 가치



지난 5월 7일(목)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 각계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의 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위로와 용기, 희망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으며, 펜스 부통령은 기도는 미국 역사의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박명수 교수, 서울신대 정년퇴임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장)는 지난 13일(수) ‘성결교회, 복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년퇴임 기념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연구소를 시작함과 동시에 조은교회가 시작됐다. 조은교회가 연구소에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세기총 대표회장에게 조일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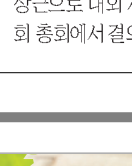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가 지난 15일(금)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일래 수

정성결교회 원로목사를 8대 대표회장

에 선출했다. 조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장합동 사무총장에 이은철 목사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임원회는 지난 11일(월) 임원회를 열어 이은철 목사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상근 사무총장이 사무국 등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총무는 비상근으로 대외 사역을 하도록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리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월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손전시/수화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셰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셰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버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틀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리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목회자평생교육

조선평 목사 // 여하성 목회자평생교육위원, 대림멜렐교회 담임 목사, 교단 교육국장

유대인의 메타인지 교육법 하브루타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공부로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아주 정확하게 시험점수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를 잘 알고 있다. 오답확인고 오답노트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틀린 문항을 분석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절대 실수를 안 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서 점수를 물어 보면 점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점수를 얘기해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오답확인고 오답노트 작성은 생각지도 않는다. 드물게 오답을 확인 하더라도 꼼꼼하게 답안분석을 하지 않고 논대중으로 훑어보는 경우가 많기에 다음 시험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의 의미”를 완벽한 숙지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관련내용에 대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메타인지를 통해 생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메타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교육법이 유대인의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자신이 배우는 걸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고수한 전통교육법으로 강의와 설명중심의 학습보다 최대 18배 이상의 효율을 나타낸다. 18시간 공부할 양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법인 것이다. 우리는 왜 유

대인의 교육에 대해 여러 미디어에서 논하고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다. 유대인의 인구 비율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에디슨, 프로이트, 로스차일드, 주빈 메타,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 등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41%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탈무드 기반의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토론 위주의 교육법이다. 강의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는 곤욕의 시간이다. 성향이 본체가 아니다. 성향이 어떻든 강의 위주의 교육은 받는 주체의 의욕을 떠나 지치게 만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인 하브루타는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없다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들을 때는 안다고 하였던 것들이 막상 활용단계에서는 다시 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하브루타 교육법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논리적 이면에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의 일상화는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에서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라도 많은 질문을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는 교육법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신앙과 건강한 국민성을 갖추게 했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전인적 믿음으로써 응답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독교적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진술로 요약, 정리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이기 때문

에 본성과 본질에 관련된 교육으로 기종이 사회 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독교교육은 일반 세속적인 학문처럼 자연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며, 그분을 아는 것이며,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세속철학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난다.

기독교교육은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계시가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계시 의존적, 즉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성경이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며 마침이 된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며, 배우며, 알며, 배운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자.

딤후 3:14-17 말씀을 보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교육은 전승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을 다시 전승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기독교교육은 자기가 인식할 나이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이다. 진정한 앎을 얻기를 훈련한다. 하지 만 현대의 기독교교육은 앎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교육은 점점 더 반 기독교적 사상과 역사관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크리스천이라 말하지만 기독교적 사상과 사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앎이 없으니 거센 풍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현 기독교교육에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아는 것을 말할 수 없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르고 있음을 인식할 때 배움이 시작된다.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이념 편향교육으로 국가 장래 그릇된다

20일 대법원에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법원이 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화되었으나, 2010년 4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2년 9월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거부하였다.

2013년 9월 다시 고용노동부가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아님 통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2014년 6월 법원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것이 공개법론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또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교조는 정권 당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좌편향, 획일적 이념 교육과 특정 사상과 정치관을 심어주는 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이념적 노리게로 전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참교육'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면,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교재로 사용하고, 북한 교과서를 따라 하고, 김일성을 영웅으로 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계기 수업'을 통해 역사 왜곡과 치우친 이념교

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집권화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경우, 우리 교단(敎團)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파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 보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교원은 특별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전교조의 민낯이 드러나는 행위들이 낱알이 드러났다. 오죽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노리게'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겠는가?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 당국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념과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리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당사자들의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만큼이라도 법치의 정의로움과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바른 법률적 판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교사들도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아직 인격과 실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의 젊은 인격체를 만 들어 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召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 바란다.

-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예술포럼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기독교와 예술

그리스도 주권하에서의 기독교 예술



예술은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합일, 즉 전인(全人)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념보다 성스러움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교가 예술에 어떤 영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종교는 보다 종교적이어야 한다. 종교가 불성실하고 피상적일 때 예술적 작품도 그 빛을 바래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가 예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하간 예술이란 그것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는,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독교 예술이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복음만 전파하면 되고, 그리고 때때로 자선사업으로 봉사만 하면 충분하다는 사고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러할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설교 전에 드릴 음악, 주일예배목록, 설교자의 설교문,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간증, 기독교 뉴스에 대한 사실 보도, 교회미디의 주간행사, 교회 내부의 장치 등 어느 하나도 예술과 관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서는 어떠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거하실 성소를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지을 것을 명하시기도 하셨다. 그런가 하면 한 때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던 것을 흔 짚게 하시기도 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요, 예술가셨던 것이다.

성서가 예술을 떠나 있고, 예술을 무시하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노래도, 솔로몬의 영광도,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강과 생명나무도 한낱 세속적인 의미 전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서의 어느 한 곳도 예술을 떠나 있는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가 예술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술을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왜 삶은 종교와 관계하는가? 왜 삶은 예술과도 관계하는가?

우리의 삶이 종교와 관계가 있고, 또 예술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와 예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쪽만 관계한다면 종교와 예술은 별개의 것이고, 서로 합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이 곧 종교이듯이 삶 또한 예술이다. 우리들 삶을 곧 예술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술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우리들 삶이 없이는 형성되어질 수 없다.

삶이 없는 종교란 불가능하다. 종교의 탄생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상을 알고부터서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때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지나서이다. 이와 같이 종교의 발단도 삶의 성숙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예술 또한 삶의 성숙에서 바라보는 삶의 유추를 표명하려는 인간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유추를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 예술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것을 옳고 그릇됨을 가려내려 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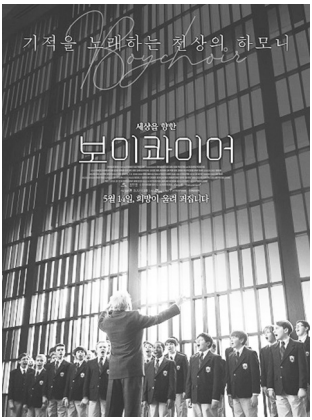
그러므로 성서가 예술을 금하고 있고, 예술이란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종교와 예술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의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월 가정의 달, 볼만한 영화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감동성장영화 <보이콰이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꿈도 미래의 희망도 없었던 소년에게 노래는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였다. 거칠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까지 한 스킷(기렛 윌리엄)을 세상이 적극적으로 밀어낼 때, 그 안에 숨겨진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깨닫게 된 두 스승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년에게 다가가 다독이고 일깨워 준다. 그렇게 날개가 꺾여 밀을 모르고 추락하던 한 영혼은 다시 세상 앞에 당당하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

한 소년의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가 소년들의 순수하고 청아한 클래식 합창곡들과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보이콰이어(Boys in the Trees)'가 지난 14일 개봉했다. 제72회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데드 바이 윌리엄'(1998)을 비롯해 '달린 글드에 관한 32개의 이야기'(1993), '요요파의 바흐'(1997), '이름들만 만든 노래'(2019) 등 음악영화를 제작해 온 프랑소와 지리르 감독이 매기폰을 잡았다.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악보도 읽지 못한 스킷은 그의 재능을 알아본 교장 선생님께 시 베이츠의 권유를 받아 최고 실력자인 모이는 미국 국립소년합창단에 우여곡절 끝에 입회한다. 고독하고 쓸쓸했던 소년의 영혼을 위로하는 성가음악의 가사와 아름다운 음율의 매력에 빠져든 스킷은 각고



의 노력으로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집안 배경과 기본기 등 모든 면에서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학교 친구들로부터 멸시와 따돌림, 괴롭힘도 받지만, 점차 그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며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합창단의 솔리스트로서 누구보다 촉망받던 자신의 위치가 스킷에 의해 위협받자,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라이벌도 등장해 긴장감을 더한다.

야생마처럼 종횡무진 하던 스킷이 위기와 고난 앞에 정당하게 맞서는 방법을 배우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한 사람의 스승은 카트벨레(더스틴 호프만) 국립소년합창단 단장이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하게 품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따듯한 충고와 차찍질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전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일깨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스승상은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야 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변성기가 오면서 더 이상 국립소년합창단에 머물 수 없게 된 스킷은 학교를 떠나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음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스킷은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정도 되찾게 된다.

서양의 성스럽고 고전적인 클래식 성가음악을 메인으로 하지만, 중간 중간 잠깐씩 흘러나오는 낭만파 음악들과 비트박스과 랩같은 합합음악도 깨알같은 묘미다.

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진인숙 목사의 회일절명,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회계보고는 전순임 목사, 회계보고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 했다.

인건토의도 정기총회를5월 28일 새빛교회(오광근목사)에서 열기로 했으며 학교수도공시에 대해서 김경수 목사가 월례회에 참석하면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했다. 학교에 필요한 선풍기,야구, 입학식 경비,식대를 감동대로 한글하기로 하고 8월 동남학원 입학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설립과 학교 자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를 당부하고 회의를 마쳤다.

세계선교협의회 제146차 월례회 개최

정기총회 5월 28일 새빛교회에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선협) 제146차 월례회가 4월 30일(목) 오전 11시 부천 연합교회(전순임 목사)에서 개최하여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기도과 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최미영 목사(새빛중앙교회)의 인도로 전인숙 목사(지구촌교회)의 대표기도, 양승수 목사(사랑의샘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요 11:25-27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

이어서 김서경 목사(열방순복음교회)의 봉헌기도,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세계선교협의회 발전에 위하여, △8월 동남학원 입학식 준비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주시파 체결을 위하여,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장 한규섭 목사(삼동제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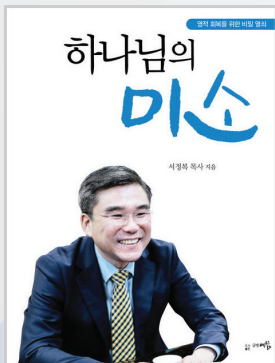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서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머리말 중에서
구입문의 (063)625-0690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식 목사, 연용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주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오세환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곽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후원계좌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척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전동용 목사 (서소영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목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이창애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한 목사 (정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양제일교회)	임용애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길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용애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세준 목사 (천안사랑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연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수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이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태 목사 (순복음형북한교회)	박홍달 목사 (연성순복음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현욱 목사 (형북한신교회)	김병주 목사 (순복음일방교회)	임헌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규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택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현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희순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의평화교회)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밍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영교회)	배용완 목사 (순복음진원교회)	육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사 목사 (예수향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성령의 은혜여야만 미래희망 가능”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 미래 희망 만들기’ 주제로 조찬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지난 5월 13일(수) 웨리튼서울다큐비시티호텔에서 ‘한국교회 미래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16회기 조찬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령운동과 부흥으로만 미래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대 목사(총괄본부장, 서광성결교회)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봉희 목사(중앙위원, 목동지구총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성령을 힘입어 부흥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목사는 “시대가 광속도로 변화되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며 “심지기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부흥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목사는 또 “무엇보다도 회개가 앞서야 한다”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와 기도를 병행할 때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조 목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며 주일성수(Time), 심일조(Tithe), 재능헌신(Talent)의 3T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조 목사는 “수준 높은 제자훈련과 어린이, 청소년 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녀들을 위한 전인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또 “한국교회 미래희망 만들기 대안으

로 하나님을 더 추구한다면 통일”이라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김희수 목사(부대표, 구리성광교회)의 대표기도, 조봉희 목사의 발제, 참석회원 질의, 고명진 대표(수원중앙침례교회)의 인사, 정성진 목사(역전 이사장, 거북한빛광성교회)의 마침기도, 박병득 사무총장의 참석회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교실서 찾은 희망캠페인, 첫 해외 진출”

K-희망 전달, 베트남 아동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도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최근 오리온재단(이사장 이경재)으로부터 베트남 지역의 ‘교실에서 찾은 희망(Hope in Class)’ 캠페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해당 후원금은 3년간 베트남 4개 지역 40개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과 즐거운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과 오리온재단 이경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오리온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베트남 내 40개 학교의 아동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후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해외국가에 최초로 적용하는 사례로, 베트남 아동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K-희망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비전은 동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의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친구간 우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 및 책임감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18년 베트남 월드비전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 중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아동들이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나 학우들 간의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재단 이경재 이사장은 “국내를 넘어 아시

아의 모든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즐거운 교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리온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월드비전과 함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2억 이상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오리온재단은 국내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뿐 아니라 월드비전의 조직지원사업 ‘하침며꼬’ 사업을 적극 후원하며 국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 하는 복지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참여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집에서 먼저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해 참여자 중 매주 우수팀을 선정해 오리온 스낵박스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오리온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월드비전의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감사한 후원 파트너사”라며, “월드비전은 오리온 재단과 함께 국내에서 환영 받았던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해외로 확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월드비전은 이번 베트남 사업을 시작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폭력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동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기독교박물관 신축 개관

5월 22일부터, 충북 제천



양각죽 50장을 사용하여 필사한 140년대의 예멘 토라(Torah).



이스라엘에서 전통 방식에 따라 양털로 짠 물매. 물매는 무릿매의 준말이며, 최대 사거리는 477m이다.



수금(성경에 나오는 악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갈릴라호수의 별명 건네랫은 호수가 수금(긴노르)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되었다)

세계기독교박물관(이하 세기박)이 11000㎡(3만 3천평)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5월 22일(금) 개관하였다.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수년 동안 전시회를 개최해 오다가 이번에 박물관을 열게 된 것이다. 이미 4개월간의 시범 운영도 마쳤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개관 행사는 열지 않았다.

박물관은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쉬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청정 계곡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건물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다. 그리고 정면에는 큼직한 일곱 촛대와 히브리어로 ‘테초에’가 새겨져 있어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식물을 1만 3천점이나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아직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도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에 이런 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획

기적이다.

박물관의 제1전시실은 마가다락방과 같은 크기로 설계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악기와 의상, 예수님시대 생활도구, 홀로코스트 유물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나사렛 회당 크기에 맞춘 제2전시실에서는 600년 전에 서기관이 양기죽에 필사한 토라와 1831년 프라하에서 인쇄된 바벨론 탈무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성탄기념교회를 본떠 만든 겔손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어로 레위족 아기 이름과 축복문을 기록한 강보, 돌 구유, 황금 유향 몰약, 해융과 침향등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제4전시장까지 가면서 두 랩트, 겨자씨,

타자기 등 성경에 나오는 물건 600여 점을 볼 수 있고, 칠칠절과 안식일 식탁, 성인식과 결혼식 등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습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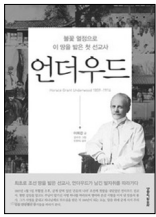
박물관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슨트의 해설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매 던지기, 달란트 무게 들어 보기, 향유 냄새 맡아 보기 등 성경 내용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도 많다.

전시장을 벗어나면 5천분의 1로 축소된 ‘작은 이스라엘’에서 성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성서식물 70여 종을 관찰하거나 향기를 맡아 볼 수 있다. 브엘세바 위치에서는 에셀나무를 볼 수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자리에서는 베드로처럼 신앙고백을 한 후 큰 종을 쳐볼 수도 있다.

박물관은 모든 소장품을 한꺼번에 다 전시할 수

신간 안내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한국 기독교 100년에 빛나는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이자,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선교사이다. 이 책에는 1885년 26세의 나이에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그가 1916년, 5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30여 년간 한국 선교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았다. 또한, 그의 어린 시절과 그가 한국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다. 그의 일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국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불꽃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그의 생애를 불사랐는지,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언더우드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 교육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수많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저자 : 이희갑, 그림-강수진,민한식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5-10 | (148*210)mm 280p | 판매가 : 16,000원

목사, 그리고 목사직



개척 교회 목사부터 대형 교회 목사까지, 신학박사부터 무인이 신학대학 출신까지, 저자는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다.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목사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자는 묵혀 두었던 7가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자신에게 솟구쳤다고 한다. 수많은 목사들이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언행과 심지어 범법 행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목사, 그리고 목사직》은 목사란 무엇인지, 목사직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무르익은 성찰을 담고 있다. 특히 사모, 부목사, 평신도들이 저자에게 보낸 상담 요청 편지가 본문에 익명으로 인용되어 있다.

저자 : 이재철 | 출판사 : 홍성사 발행일 : 2020-05-08 | (123*205)mm 296p | 판매가 : 14,000원

엄마표 신앙교육



‘이 방법이 맞는 걸까?’ ‘혹시나 내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염려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완벽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공부해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완벽한 부모가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실수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하나, 충성되다.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적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여호와와 기업인 자녀들을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 된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고 복음과 은혜를 전수하기 위해 말씀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자.

저자 : 백은실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5-08 | (150*210)mm 272p | 판매가 : 14,000원

메이크 뮤직



메이크 뮤직’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찬송하리이다, ‘음악을 만들다’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노래라고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의 음악이나 노래가 아닌 삶으로 어떻게 메이크 뮤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는 위로 하러 가는 것,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지체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나의 고통을 투명하게 말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등이 우리가 삶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한다. 그 멜로디들이 한때 어우러지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멋진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 나가기 할 성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관계 맺기 의 비밀이라고 한다.

저자 : 하형록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 발행일 : 2020-05-13 | (145*205)mm 236p | 판매가 : 13,000원



세계기독교박물관 전경. 입구에는 일곱 촛대가 서 있고, 벽에는 ‘베레쉬트(테초에)’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다. 박물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식물들을 보면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없는 데다 관람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시품들을 수시로 교체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절기관은 3개월마다 새로운 절기로 교체되고, 6개월 후에는 나드와 옥합 대신 할레도구가 전시된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농기구 대신 식물 표본이 전시되고 1년 후에는 의상관이 이집트관으로, 악기관은 무기관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재방문자에게는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한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수집되었고 이집트, 요르단에서 수집된 것도 많다.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의 아세라와 청동시대의 항아리, 예수님시대의 생활도구 등 수 천 년이나 된 유물이 많고, 홀로코스트 전시품들은 75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이다.

도슨트의 해설이 필요한 것은 전시품들이 생소한 데다 성경 내용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열 처녀가 손에 들고 나간 것은 등불이 아니라 랫볼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이해! 그래서 기름을 한 움큼이 아니라 그렇게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 kotza에 재직하면서 성경 유물을 수집해 온 김종식 목사는 중고등학교 시절 알 수 없는 병을 앓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병을 고쳐 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모으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한 후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장로가 되었고, 80세가 넘어서야 목사가 된 그는 “성경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의 90%를 소장한 박물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기독교박물관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관람해야 할 필수 코스가 될 전망이다.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기준 만원이지만 입장객 수에 따라 6천원까지 할인되며, 다자녀 가족이나 재방문자에게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설사 준비 관계로 단체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개인 입장객을 위한 정규 해설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이다. 주일 오전과 수요일에는 휴관하며, 예매나 오전을 위한 장소는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043-651-0191)

세기총, 14~15일 제8차 정기총회

대표회장 이·취임예배도…신임 대표회장에 조일래 목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식 목사·세기총 제8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예배가 지난 5월 15일(금) 100주년 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가운데 국내 바이러스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정기총회, 대표회장 이·취임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정여균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근 장로의 기도와 공동회장 김종택 목사의 성경봉독,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설교,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드러났다.

2부 정기총회 회부처리는 대표회장인 최낙식 목사가 미국에서 오지 못하는 관계로 직전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시기에는 준비위원장이

조일래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의장인사를 대표회장 최낙식 목사가 영상으로 전했다. 또한 직전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사업보고 및 활동보고를 했다.

정기총회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표회장 이·취임예배는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인 김동욱 목사의 기도와 공동회장인 박광철 목사의 성경봉독,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말씀선교,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를 드렸다.

이어 최낙식 목사가 영상으로 이임인사를 대신하고, 신임대표회장인 조일래 목사가 취임인사를 전했다. 또한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가 격려사를, 기감 전 감동회장 전용재 목사와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 유기총 사무총장 김호동 목사, 수경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CTS 창사 25주년 특별모금 생방송

CTS WEEK,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CTS기독교TV(이하, CTS)는 5월 18일~22일을 'CTS WEEK 주간'으로 선포하고,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CTS WEEK'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교회 예배와, 영적 목마름으로 회복이 갑갑했던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집회로 시작된 'CTS WEEK'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 그리고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방송으로 전했다.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와 총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 그리고,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목사, 두레수도원 김진홍 원장 등이 복음으로 회복될 대한민국에 대해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국내 미지립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환우, 그



리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CTS방송 이후의 간증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 생방송 CTS WEEK는 △월= '이 땅을 위로 하소서' △화= '영적 회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수= '치유로 회복되게 하소서' △목= '섬김과 나눔

으로 회복시키소서' △금=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방송되었다.

아니운서 최선규, 최윤영, 개그우먼 김지선, 방송인 조항기 등의 진행으로 방송되는 'CTS WEEK'는 개그우먼 조항연,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이도진 등 크리스트천 연예인 및 방송인들과 CTS 영상선교를 동역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후원 사례를 나누기도 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번 방송을 통해 CTS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을 전하는 방송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방송과 SKYLife 183번과 IPTV(KT ollehTV 236번, SK BTV 301번, LG U+ 269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0 월드비전 버추얼 6K’ 개최

마라톤과 기부 모두 잡는 온라인 기부 런(Run)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라톤 참가, 아프리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기부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1석3조의 온라인 기부런(Run)인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를 5월 22~24일까지 진행한다.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글로벌 캠페인인 '글로벌 6K 포 워터(Global 6K for Water, 이하 글로벌 6K)'를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한 기부런 캠페인이다.

월드비전의 '글로벌 6K'는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 6km를 행사 참가자들이 걷거나 달리면서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위해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식수위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진행해왔다.

월드비전은 2020년 상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



을 감안해 캠페인 참여자 간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식수가 부족한 에티오피아 지역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위생 사업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개교 68주년 맞은 한국성서대, “오직 한 줄기 빛으로”

12대 이사장 반종원 목사 7대 총장 강우정 목사 취임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신학원 제12대 이사장에 반종원 목사(수원침례교회)가 취임했다.

한국성서대학교(총장 강우정 목사)는 지난 5월 13일(수)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성서대학교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개교 68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하시고 인도하신 역사에 감사드리고 동시에 앞으로 한국성서대학교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제12대 이사장 이취임식과 함께 제7대 총장 취임식도 함께 열려 11대 이사장 김창원

장로가 이임하고, 12대 이사장에 반종원 목사가 취임했다. 7대 총장으로는 강우정 목사가 취임하여 계속해서 한국성서대학교를 이끌어나간다.

취임사를 전한 반종원 이사장은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성서대학교에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 이사장은 “지난 6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중, 강태국 박사를 부르셔서 우리 학교를 설립하게

하신 이래로 그 설립목표와 방향이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직 한 줄기 빛으로 흐르고 있음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인사했다.

취임사를 전한 강우정 총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과 이사님들, 형제교회 교우 여러분과 귀빈 여러분,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학우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한다고 고백하고 싶다”며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너무 고맙고, 저를 받아주시는 구원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멈출 수 없는 전도



코로나바이러스같은 어려운 환경에도 멈출 수 없는 전도.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씻기와 개인위생에 각별히 조심함에도 바이러스는 전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자 국민일보기사에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나왔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심각한 예측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하늘길이 쏠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으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이 최근 1,100만 명이 넘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진단검사에 돌입했다.

이는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다. 5월 16일 현재 전세계 감염자는 440만명,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무역전쟁으로 인해 전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여러 환경으로 인해 예배부터 위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더욱 복음의 빛을 발한 역사가 성경에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손을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갔지만 그때마다 거절당

하는데 그랍수목 열 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바로왕의 영적싸움에서 이기고 결국 구출해낸 것을 볼 수 있다(출 3:1~11:1~10). 복음전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100여 년 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베퉰 2:5).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땅을 정탐하고 백성들에게 짓과 꿀의 땅이라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열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다.

이 외에도 성경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더욱더 복음전도의 사명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지금은 갈수록 복음전할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멈춰서는 안되는 것이 전도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평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영적싸움터로 나가자.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소금물) 양치로 입안의 위생을 지키자!

●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하나님의 일상

아- 하나님은 오늘, 내일, 그 다음날을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세상 모든 만물이 0.1초 전과도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지요!

어제 눈꽃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벚꽃잎을 보았는데,
오늘 눈부시게 빛나는 파란잎이 방긋 웃고 있네요.
하나님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셨죠.

제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도
제 머리 밑에서 저를 지켜 주셨다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셨죠.
사실은 이런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어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밥 먹고, 참으로 당연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무감각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라죠.

하나님 제가 조금씩 철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인생에 있어서 조용하고 평온한 날은 후퇴하는 시간이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이를 헤치고 나아가려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진정한 삶의 시간이요
고귀한 발자취가 된다.

인생 모든 영화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떨어짐은 순간이요,
세우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라도
무너지는 시간은 극히 잠깐이다.

배부름은 잠을 불려와 나태하게 하지만
나를 비워 갈망하게 하고, 목 말라 생수를 사모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극한의 가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뿌리 한 가닥만이라도 꼭꼭 숨겼다가
마침내 내리는 늦은 비에 서둘러 싹을 내고
잎을 내밀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풀꽃 한 포기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철들어 가는 못난 아들이 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제14회 아름다운 행복’ 당선작 전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5월 11일 (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14회 입양가족 작품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전시회를 열었다.
5월 31일까지 롯데호텔월드 2층(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서 진행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주)호텔롯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입양아동과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진 10작품, 동영상 2작품이 선별됐다. 당선작은 사진 각 30만 원, 동영상 각 50만 원의 원고료와 함께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이 부상으로 쥐진다. 당선작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증-47402호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 훌륭한 군사 시니어 5기 |

‘죽지 않고 사는 법’

ego death

자아의 죽음

self denial

자기 부인

일시

6월 4-6일 (목-토)

문의

인터뷰 후 등록
(010-5145-3816)

장소

괴산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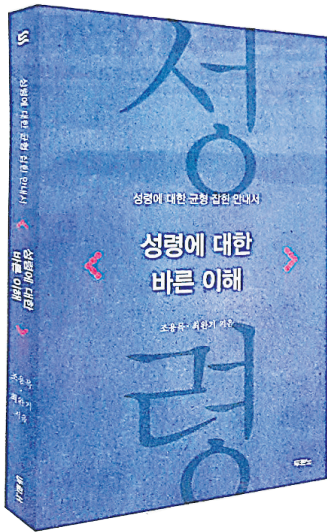
회비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ENHAKKORE MINISTRY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